

# 나라는 주체의식이 선악과라는 엄청난 사실을 선포하다

신에 대한 본질도 모르면서 신학을 공부하고 졸업했다고 하면 난센스입니다. 그럼 신이란 무엇인가? 바로 영입니다. 그리고 영은 성경 기록에 의하면 인간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마음이 신이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지도 덜하지도 말라(신12:32, 사34:16, 계22:18-19)"는 것에 해당하는 진리입니다.

신이 안 보인다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인간의 마음이 안 보이는 것이 바로 신이 안 보이는 이치와 같다는 사실을, 이 사람이 정확히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대로 인간의 마음이 신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 신인 고로 이제 이 사람이 곳을 못하게 하는 마음을 가지면 곳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신이기에 이 사람이 신으로서 그 귀신 장난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 신학을 공부하는 많은 사람들이 신에 대해서 연구하지만 아는 게 없어

인간의 마음이 신인 고로 태풍을 못 불어오게 한다고 마음을 가지면 태풍이 못 불어오는 이유가 바로 이 인간의 마음이 신이 태풍을 못 불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또 인간의 마음이 이제 공산주의를 없앤다고 하면, 공산주의가 없어지는 걸 보아도 역시 신이 이 공산주의를 없애는 것입니다. 그 신이 인간의 마음인 고로 마음이 공산주의를 없애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산주의를 없앤다고 하는 이 사람은 이제 이런 보통 사람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날 이긴자의 마음은 전지전능의 능력의 마음이고, 능력이 있는 신인 고로 그러고도 이 우주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신학을 공부한다고 그리고 신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제 "신이라는 게 어떻게 생겼나?"라고 물어보면 "나도 모른다."라는 답변이 나옵니다. 이렇게 모르는 게 신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알아야 신학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세상에는 학문도 종교도 없었다!"라고 이 사람이 21

년간 외쳤던 것입니다. 학문이라는 것은 사물에 대한 실체를 바로 아는 것이 학문이지, 사물에 대한 실체를 바로 알지 못하고 왜곡해서 알고 있는 것은 그게 학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그대로 성경에는 사람이 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신이라고 했는데, 오늘날 기독교나 불교나 모든 종교들은 사람을 전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사람이 신이라고 했고, 또한 불경에도 사람을 부처님이라고 했습니다. 역시 불경에도 신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이렇게 성경이나 불경은 바로 말하고 있지만은 오늘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잘못 알고 있으니, '이 세상에 학문이 없다고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 맞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 인간 속에 나라는 주체의식이 선악과라는 사실을 종교가들이 알지 못해

또한 이제 그대로 종교가 없었다는 말을 이 사람이 외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신이 주장하는 역사가 종교 역사인 고로 그러고도 영생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될 때에 종교가 되는 것이지, 마귀 역사인 바로 죽음의 역사는 종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고도 이 세상 사람들은 이제 보통 이제 그대로 기도하고 예배 보면 종교인 줄 알고 있는데, 종교라는 것은 진리의 구현이 종교요, 종교라는 것은 바로 영생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종교이지, 이제 죽는 역사가 행해지는 죽는 종교단체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고도 죽는 것은 분명히 마귀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사망의 신인 고로 사망의 신에 의하여 죽는 것은, 그것은 진리의 종교단체가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영생의 단체가 될 수가 없는 것이옵니다. 그러고도 오늘날 종교라고 하는 것은 진리구현이 종교요, 죽지 않고 영원무궁토록 사는 영생의 역사를 하는 것이 종교이지, 죽는 것은 종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세주 조희성님

그리고 의가 어떤 것이 의고 죄가 어떤 것이 죄라는 것을 알아야 그게 종교이지, 죄가 뭔 줄도 모르면 종교가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아고보서 1장 15절에 "육신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구절에 (육신이 죄)라고 명백히 써여 있지만 오늘날 종교들은 이제 그대로 죄의 정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바로 죄가 욕심이라고 하였으니까 바로 욕심자체가 욕심부리는 게 아니고 나라는 주체의식이 욕심부리는 고로 바로 나라는 주체의식이 바로 원죄가 됩니다. 원죄란 죄의 뿌리가 된다는 것이옵니다. 바로 나라는 의식에서 욕심이 나오는 고로 그러고도 죄의 뿌리가 된다는 말씀인 고로 바로 욕심이 죄라면 바로 이제 욕심을 부리는 마음이 죄의 뿌리가 되는 원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나라는 의식이 원죄가 되는 것입니다.

원죄가 선악과요 선악과가 원죄인 고로 그러고도 이제 나라는 주체의식이 원죄가 되고 선악과가 되는 고로 아담과 해와가 먹은 선악과가 바로 아담과 해와의 후손인 인간 속에 나라는 주체의식이 선악과라는 답이 똑떨어지는 것입니다. 인간 속에 나라는 주체의식이 선악과라는

사실을 오늘날 이 종교가들이 알지 못하고 있으니 '이 세상에는 종교가 없다'는 것이 틀림없이 맞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은 영적 말인 고로 부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다시 사는 것**

이제 그대로 나라는 주체의식이 바로 선악과라는 이 엄청난 사실을 오늘날 여러 분들에게 구세주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바로 나라는 주체의식을 없애버리는 방법을 이 사람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반대생활을 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나라는 것이 일하기 싫으면 일을 열심히 해라! 나라는 것이 누구를 미워하면 미워하는 사람을 진심으로 좋아하고 진심으로 사랑해라!

이와 같이 반대생활을 하게 되면 바로 나라는 주체의식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지 아니하면 나라는 주체의식이 점점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 약해졌을 때에 바로 하나님의 영이 그 마귀의 영을 죽여서 없애버리고 바로 마귀가 앉았던 그 자리에 하나님이 좌정해서 앉을 때에 비로소 성령으로 거듭났다 되고 부활함을 입었다가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도 부활이라는 말씀 자체가 성경 말이요, 성경 말은 영적 말인 고로 바로 하

나님의 영이 다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고로 그러고도 영적 무덤 속에 갇혀 있었던 하나님의 영이 영적 무덤인 마귀를 죽여 그리고 그대로 하나님이 거기에서 영적 무덤 속에서 석방되어 나와 바로 나라는 주체의식의 자리에 앉으면 바로 이제 성령으로 거듭났다가 부활함을 입었다가 된다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바로 '하나님 안에서 행한다'고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나님이 되는 것이요, 하나님 안에서 행해야 바로 하나님이 되는 고로, 그러고도 오늘날 구원론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을 얻는다, 생명과일을 먹어야 구원을 얻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마귀를 이기는 승리의 하나님의 영이 믿음이고, 바로 생명과일 역시 이제 마귀를 이긴 승리의 하나님의 영이 생명과일이라는 것을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고도 생명과일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영이요, 부활함을 입은 영이 바로 승리의 영이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에서 이걸 알지 못하고 모르고 있습니다. 이제 그 기독교는 하나님에서부터 열 가지 다 아는 것이 없어요. 다 몰라요. 그래서 바로 이 사람이 논한 이 진리의 말씀을 모르면서 성경 전체를 모르는 것이요, 이제 또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옵니다.

하나님의 뜻은 지금으로부터 6천년 전에 하나님께서 마귀한테 저가지고 마귀의 포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힘을 키워 가지고 마귀를 이기고 마귀를 죽여서 없애버리고 마귀가 좌정해서 앉아 있던 자리에 하나님이 도로 앉는 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부활의 역사요, 이것이 성령으로 거듭난 역사인 것이옵니다.

**누구를 믿는 마음으로는 구원 없어**

그러고도 오늘날 부활함을 입은 영이 바로 생명과일이요, 부활함을 입은 그 영이 바로 믿음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

을 했습니다. 그대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마귀를 이기는 승리의 영인 고로 하나님의 강한 영이지 약한 영이 아닙니다. 마귀를 이기는 강한 영이 곧 성령으로 거듭난 영이요, 부활함을 입은 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긴자 구세주가 나오기 전에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고 못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고도 마귀를 이기고 마귀를 죽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신이 나와야 바로 구세주가 되는 것이요, 구세주가 나와야 바로 마귀 세상을 뒤집어엎어 하늘나라를 이룩하게 되는 고로 바로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면 바로 이제 마귀 세상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인간 세상이 곧 마귀 세상이기에 그러고도 인간 세상이 전부 없어지려면 바로 인간이 변해서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인간이 변해서 하나님이 되려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이 되는 것이지, 이제 그대로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누구를 믿어가지고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고도 누구를 믿는 마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논리에 얽매어 있는 기독교의 구원론은 순전히 엉터리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려면 바로 마귀를 이긴 승리의 하나님의 영이 거듭나게 되는 것이고 승리의 하나님이 바로 마귀를 이기고 마귀를 죽인 다음에 다시 살아나는 영인 고로 부활함을 입은 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죽은 사람의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기독교가 부활의 진의(眞意)를 모르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바로 영적인 말씀인 고로 영적인 부활인 고로 하나님이 마귀 속에 갇혔다가 마귀 속을 부수고 마귀를 죽이고 마귀가 앉았던 그 자리에 하나님이 좌정하는 것을 이것이 바로 부활함을 입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했던 것입니다.(이하 줄임)\*

본부제단(2023년 11월 18일 토요일) 예배 말씀

## [연재] 아브라함 족장시대에서 삼손의 사사시대까지

### 《7장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진군하다》



## (2) 호르산에서 아론의 죽음

### (2) 호르산에서 아론의 죽음

신 광야의 가데스를 떠난 지 16일 만에, 사신이 에돔왕을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그때가 출애굽 40년 2월(이아르월) 중순이었습니다. 사신의 보고를 받은 모세는 길을 내어주지 않는 에돔을 치고 가나안으로 진군하려고 작정하였습니다. 무교절의 첫날(니산월 15일)로부터 49일째 되는 3월(시완월) 6일에 칠칠절(맥추절)을 신 광야에서 지내고, 출애굽 40년 4월(담무스월) 초순에 가나안 정복의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이스라엘의 60만 대중은 모세와 아론의 통솔 하에 가나안을 향해 일사불란하게 이동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호렘산의 신 광야에서 출발한 그들은 출애굽 1세대들이 죽어 매장된 쿠레이아의 공동묘지에 들렀습니다. 거기에는 모세와 아론의 누님 미리암이 묻힌 곳이기도 합니다. 쿠레이아에서 비르 하마스(Ai Bir)를 경유하고 그리고 오늘날 사우디와 요르단의 국경을 넘어 무다와라(Mudawwarah)를 거쳐 하티야(Hattiyah) 계곡을 지나 마안(Maan)까지 올라온 이



산 정상에서 모세가 아론이 착용한 대제사장의 예복을 벗겨 엘르아살에게 입히다

스라엘 백성들은 호르산이 있는 페트라(Petra)로 향했습니다.

민수기 20장 22절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호렘산의 신 광야)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에돔 땅 접경에 있는 페트라는 장미빛과 무궁화의 보라빛을 발하는 사람(砂岩)절벽과 바위산들로 즐비하게 수놓고 있었습니다. 출애굽 40년 4월(담무스월)

중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은 여기 페트라에서 진지(陣地)를 구축하였습니다.

출애굽 40년 5월(암월) 1일,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므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날 모세는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페트라에서 제일 높은 호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산 위에서 모세는 아론이 입었던 제사장의 옷을 벗겨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니, 아론은 산꼭대기에서 죽었습니다.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사람들은 자애롭고 칭송받던 아론이 죽는 것을 알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30일 동안 죽은 아론을 위하여 배옷을 입고 '아이고, 아이고' 하며 애곡(哀哭)하였습니다.\*



▲ 호르산(Mt Hor)으로 여겨지는 '자발 하룬(Jabal Haroun; 아론의 산)'은 페트라(Petra)에서 해발 1,593m의 가장 높은 산이다

사진 출처 \_ [https://nabataea.net/explore/cities\\_and\\_sites/jebel-haroun/](https://nabataea.net/explore/cities_and_sites/jebel-haroun/)



▲ 호르산(자발 하룬) 정상에 있는 이슬람의 모스크가 원래 아론의 무덤 위에 지어졌다고 한다

1 호르산(Mt Hor): 이 산은 페트라에서 해발 1,593m의 가장 높은 산입니다. 모세의 형, 아론이 호르산 꼭대기에서 죽었다고 해서 '자발 하룬(Jabal Haroun; 아론의 산)'이라고도 합니다. 참고로 이슬람 경전인 꾸란(Quran)에서는 아론을 '하룬'이라고 일컫습니다.

2 한민족은 이스라엘 '단지파' 민족이기에, 유대 민족의 장례의식과 제사의식이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삼배옷을 입고 '아이고 아이고' 하며 통곡하였고, 이스라엘에서는 굶은 배옷을 입고 '아이고 아이고' 하며 곡했다(창세기서)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두 민족은 높은 산에서 돌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창세기 22장).